

최종 결과 보고서

팀명 : 달디단 밤양갱

팀장 : 김진원

팀원 : 김규리 이상목 이주연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1주차] 2024년 3월 27일 12:00	모임장소	상상 베이스
팀명	달디단 밤양갱	멘토교수	김영아 교수님
참여자	김규리, 김진원, 이상목, 이주연		
진도	도서명: 흑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진도페이지:	p.11 ~ p.71

토론 내용

1장. 디나이얼 인티제

- 은주와 경민/ 유정과 경민 : 본인은 MBTI가 비슷한 사람과 맞는가 다른 사람과 맞는가?

- 김진원: 친구 관계에서 MBTI는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MBTI가 유행하기 이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알고 있다. 친구의 MBTI가 이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화코드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연인관계에서는 비슷한 사람과 맞는 것 같다.
- 이상목: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나와 MBTI가 비슷한 게 좋다. 업무를 처리할 때 있어 더 효율적이고 생각이 비슷해 갈등을 빚지 않을 것 같다. 연인관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람과 맞는 것 같다.
- 김규리: 친구나 연인관계나 서로 비슷한 사람이 좋은 것 같다. 또한 조별 과제처럼 짧은 기간 동안 알고 지내는 경우는 달라도 상관없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낼 경우 비슷한 사람과 맞는 것 같다.
- 이주연: 만나는 기간과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많이 만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잘 맞는다. 반면 가끔 만나는 사이라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같다.

2장. 주말에는 보통 사람

- 윤아'가 '나'에게 대학원 과정을 그만두고 브이로그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 것처럼 만약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원: 실제로 그런 조언을 구하는 친구가 있었다. 대학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도전한다는 말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소설처럼 강아지 브이로그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면 말렸을 것 같다.
- 이상목: 친한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격려하고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하던 일을 계속하던지, 강아지 브이로그를 도전하던지 그 친구의 마음이 기운 선택을 응원할 것 같다.
- 김규리: 친한 친구가 조언을 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말리고 싶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도전하라는 조언으로 도전을 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
- 이주연: 친한 친구가 브이로그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근거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물어본다면 그 친구의 결정을 응원할 것 같다.

-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 김진원: 남자라고 이입하며 책을 읽다가 타로마스터의 질문 중 연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남자라고 확신했다.
- 이상목: 처음부터 남자라고 생각하며 책을 읽다가, 타로마스터의 연애 관련 질문을 듣고 남자라고 확신했다.
- 김규리: 처음에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아'와 '나'가 타로를 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간 질문들을 보고 남자라고 생각했다.
- 이주연: '나'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또한 실제의 나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여자로 생각했다. 그리고 타로점에서 윤아와의 관계를 질문한 타로마스터를 보고 확신한 것 같다.

MBTI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MBTI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는 상황 'MBTI 과몰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대의 MBTI를 듣고 단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모습이 싫다.” (김규리),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력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이상목), “처음 스몰토크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이주연), “MBTI로 상대를 파악하고 판단 내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자신이 MBTI를 보고 그 틀 안에 가두는 생각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김진원)

MBTI에 대해 과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팀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인증 사진



김진원, 이상목, 이주연, 김규리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2주차] 2024년 4월 3일 12:00	모임장소	상상 베이스
팀명	달디단 밤양갱	멘토교수	김영아 교수님
참여자	김규리, 김진원, 이상목, 이주연		
진도	도서명: 흑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진도페이지:	p.79 ~ p.105

토론 내용

3장. 도도의 단추

- 제목이 '도도의 단추'인 이유는 무엇일까?

- 이주연: 영지에 고민거리가 해결되어 마음에 짐이 떨어진 것을 도도의 뱃속에 있던 단추가 사라진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인것 같다.
- 이상목: 도도를 통해서 영지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제목을 지은 것 같다.

- 영지는 현대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결혼제도는 자본주의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해악이다.'라고 생각한다. 결혼제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 김진원: 결혼제도라는 법을 통해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법이 우리나라의 관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결혼이라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 이주연: 결혼제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생각한다. 결혼은 사랑의 종착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체성의 종착지가 결혼인 것 같다. 결혼제도가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은 맞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규리: 법적 결혼은 종종 이성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같은 경우 법적 결혼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 이상목: 우리나라의 현재 결혼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닌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은 나이가 차서 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도도의 단추는 실재했을까? 그리고 영지가 고슴도치를 애지중지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 도도의 단추는 실재하지 않았을 것 같다. 걱정이나 불안 그것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문자, 말을 잘 들었다는 선아언니의 문자를 듣고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없어지자 도도 뱃속에서 났던 달그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 영지가 고슴도치를 애지중지 키우는 이유는 전 애인에 대한 미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목) 또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비용을 듣고 어떻게든 고슴도치를 살리려는 마음은 영지의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규리)

인증 사진



김규리, 이주연, 이상목, 김진원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3주차] 2024년 5월 1일 12:00	모임장소	상상 베이스
팀명	달디단 밤양갱	멘토교수	김영아 교수님
참여자	김규리, 김진원, 이상목, 이주연		
진도	도서명: 흑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진도페이지:	p.111 ~ p.170

토론 내용

4장. 그때는 그때 가서

- 일을 안 하는 애인을 본다면?

- 이주연: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힘들 수 있지만 연애로만 생각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김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취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등 정우처럼 상대가 상처받는 말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진원: 정우의 생각에 공감한다.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1인분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 이상목: 애인의 생각을 존중할 것 같다. 하지만 이해는 하지 못할 것 같다.

- 현실감이 없는 것은 MBTI와 관련이 있을까?

- 이주연: 현실 감각과 MBTI는 관련이 없다. 현실 감각은 오로지 성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또는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부분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MBTI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한다.
- 김진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T와 F를 보았을 때 T가 F보다 현실감이 있는 것 같다.
- 이상목: 현실감각도 성격 특성중 하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MBTI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김규리: 관련이 없다. MBTI로 모든 사람을 분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성격이 있을 수도, 상황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고작 16가지의 성격만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 감각은 MBTI로 판단할 수 없다.

5장. 알고 싶은 마음

- MBTI를 물어보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진원: 처음 보는 사이에서 MBTI를 물어보는 행위는 더 친해지기 이전에 색안경으로 서로를 단정지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깊은 만남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 이상목: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간단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 김규리: MBTI만으로 첫인상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기에 딱히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에 MBTI로 나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주연: 만나서 MBTI 물어보는 것은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볍게 물어보는 것, 참고만 하는 정도, 좋다고 생각한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서 좋아하는 것 같다. 자신의 주관에 대해 덜 공개하는 느낌이라 가벼운 것 같다.

- MBTI를 물어보는 행위가 제스처라고 말하는 작가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규리: 단순한 제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첫 만남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한 질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질문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MBTI가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이주연: 작가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MBTI는 비교적 간단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빠르게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친분을 쌓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증 사진



이주연, 김규리, 김영아 교수님, 김진원, 이상목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4주차] 2024년 5월 8일 12:00	모임장소	상상 베이스
팀명	달디단 밤양갱	멘토교수	김영아 교수님
참여자	김규리, 김진원, 이상목, 이주연		
진도	도서명: 흑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진도페이지:	p.177 ~ p.206

토론 내용

6장. 나 여기 있어

- 모서리에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 김규리: “나 여기 있어.” 솔아와 친해지고는 싶은데 먼저 다가갈 자신은 없어서 모서리라는 경계에서 솔아와 친해질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 이상목: 다른 이에게 대놓고 정면으로는 말 못하고 모서리에서 솔아에게 외치는 느낌이다. 0과 0.1은 다른 것처럼 말이다.
- 이주연: 솔아가 조금 더 당겨지고 싶어 하는 느낌이다. 상대방이 좀 더 나에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다.
- 김진원: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다. 주인공에 빗대어 보면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는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과 나는 반대인 것 같다. 나라면 모서리에서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내부로 들어갈 것이다.

- 지원이가 해준 솔아의 타투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 이주연: 지원이가 타투이스트인데 뭔가 남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행동을 해왔다. 친해지고 싶은 솔아에게 자신에 흔적을 남겼는데 효진의 일이 겹치면서 자신에 흔적이 사라진 것 같다.
- 김규리: 솔아가 직접 자신의 타투를 지웠다고 생각한다. 타투를 받을 때 솔아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한 상황을 보면 솔아가 지원이와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타투를 지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상목: 솔아 표정을 상상하면 친하기는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솔아가 지원이와 내적친밀감을 지니고 싶지 않은 것 같다.

-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 행동하는 방법.

- 김진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한다. 표정이나 감정을 숨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 이주연: 강단이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밀고 나간다. 항상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주변인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 고정적이지 않고 다듬어 나가는 느낌인 것 같다.
- 이상목: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 만나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 맞춰서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

인증 사진



이상목, 김진원, 김영아 교수님, 김규리, 이주연

활동 소감

• 김진원: MBTI가 여기저기서 쟁점이 되는 만큼 독서토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심오한 내용이 아니었기에 교수님과 학우들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MBTI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 성격유형별로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통해서 MBTI의 과도한 몰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기회였습니다. 나 자신을 16가지 유형 속에 가두어선 안 되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해당 MBTI에 대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자신을 끼워 맞추는 행위 같은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제가 가벼운 만큼 교수님과 학우들과 깊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독서토론을 한다면 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의성 있는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상목: 저는 MBTI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부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MBTI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인 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MBTI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나랑 MBTI가 같은 주인공한테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나였어도 저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BTI가 장점만 말해주는 성격유형 검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 성격의 단점까지 묘사되는 부분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서토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규리: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독서클럽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만에 책에 접근하게 되었고, 소설의 주인공에 스스로 대입도 해보고 작가의 의도 등에 대해 고민하며 조원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전에 알고 있던 선배 및 동기들과 활동했던 반면, 이번에는 새롭게 알게 된 선배들과 활동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갈 수 있는 얻은 것이 많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활동에서도 지도 교수를 맡아주신 김영아 교수님께서 다음에 독서클럽을 또 하게 된다면 책을 같이 골라보자고 말씀해주기도 하셔서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 번째 독서 클럽 활동에 또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주연: 저번에 독서 클럽 활동을 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기에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활동에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MBTI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람들마다 다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등장인물의 상황이 달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번 책은 주제가 비교적 가벼워서 간단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이 점을 고려해 책을 선정하면 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